

# 테오도치온 다니엘 수산나와의 비교를 통한 원-칠십인역 다니엘 수산나의 파이데이아적 요소\*

곽은성(계명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수산나(Susanna)는 칠십인역 다니엘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다.<sup>1</sup> 칠십인역 다니엘은 마소라 사본 및 다른 칠십인역 본문과 비교해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칠십인역 다니엘에는 마소라 사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 가지 추가 본문이 포함되어 있다.<sup>2</sup> 추가 본문의 제

\* 이 연구는 2024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과제번호: 20240487).

1 본 연구를 위한 칠십인역 다니엘 편집본은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괴팅엔대비평 편집본을 사용할 것이다. Joseph Ziegler, Olivier Munnich, and Detlef Fraenkel, *Susanna, Daniel, Bel et Draco* (Göttingen Septuagint XVI,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본문비평 용어는 다음을 참조한다.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김정훈/배희숙/차준희/하경택 옮김), (서울: (재)대한성서공회), 357-371. 원제는 Alexander Achilles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2 대다수 학자는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 두 본문을 하나의 본문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곽은성, “‘아자리아의 기도’: 번역과 주해 및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한 고찰”, 『신학사상』 197집 (2022년 여름), 88. 각주 1번.

www.kci.go.kr

목은,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이다.<sup>3</sup> 둘째로, 다른 칠십인역 본문과는 다르게, 두 역본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원-칠십인역 다니엘(Old Greek: OG-단)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를 수정한 테오도치온(Θ) 다니엘 역본(Theodotion: Th-단)이다.<sup>4</sup> 제롬은 불가타(Vulgate) 다니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두 역본 중에 Th-단을 선호했고,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Th-단 사본이 주로 통용됐다. 공동번역개정판은 칠십인역 다니엘의 추가 본문을 포함하는데, OG-단이 아닌 Th-단을 대본으로 했다.<sup>5</sup>

본 논문을 통해 칠십인역 다니엘에 포함된 수산나의 두 역본인 OG-수산나와 Th-수산나 비교를 통해 OG-수산나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칠십인역에 관한 핸드북이 다수 출판이 되면서 칠십인역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up>6</sup> 칠십인역 다니엘 연

3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이 본문들을 제2경전으로 인정하는 반면, 개신교는 이를 외경으로 분류한다.

4 Alexander A. Di Lella, “The Textual History of Septuagint-Daniel and Theodotion-Daniel”, J. Collins and Peter W. Flint(eds.),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vol. 2 (Leiden: Brill, 2001), 586-607(특히 593-595). 테오도치온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서울: 바오로딸, 2009), 141-153.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타난 개정본에 대한 관점은 다음을 참조하라. 우상혁, 「아리스테아스 서신과 칠십인경 개정」, 『신학사상』 146집 (2009년 가을), 39-70.

5 다니엘에 추가된 본문 중 OG-단의 아자리아의 기도 내용과 제롬이 Th-단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은성, 『릿글』 87-120. 칠십인역 두 본문의 역사와 본논문의 칠십인역 대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팅엔 대비평편집본의 편집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은성, 「헬리어로 접근할 수 있는 칠십인역 본문 우리말 번역 사례 연구」, 한국칠십인역번역위원회 지음. 김정훈 편집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 필요성과 의미, 하박국서 본문의 실례』(서울: 감은사, 2024), 72-75. 시편 151편도 칠십인역에 추가된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정훈,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9권 2호 (2023), 9-40.

6 최근 출판된 외경과 칠십인역에 대한 핸드북 중에 다니엘서 칠십인역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R. Timothy McLay, “Daniel(Old Greek and Theodotion)”, James K. Aitken(ed.), *The T&T Clark Companion to the Septuagint* (London: New York, NY: Bloomsbury, 2015), 544-554; Lawrence Lahey, “The Additions to Daniel”, James K.

구 경향을 살펴보면, OG-단 보다는 Th-단 연구로 진행됐다. Th-단 연구사 및 Th-단의 번역 기법이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는 계속 진행됐지만,<sup>7</sup> OG-단에 관한 연구는 최근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OG-수산나는 아직 한국어로 번역조차 되지 않았다. 김동주가 언급한 것처럼 수산나는 초기 기독교 교리와 교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천사무엘과 김동주의 연구를 제외하면 국내 성서학계의 수산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전무하다.<sup>8</sup> 이러한 연구동향은 OG-수산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학계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성을 보여준다.<sup>9</sup>

본 연구의 목적은 Th-수산나와 비교하여 OG-수산나의 문학적 특징이 두 장르의 탐욕과 부패를 더욱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특징을 OG-수산나의 목적을 헬레니즘 시대의 파이데이아를 통해 이해하는 데 있다. 수산나 이야기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2장에서는 먼저 수산나 이야기를 개관하며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Th-수산나와 OG-수산나를 비교 분석하여 OG-수산나의 문학적 특징과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

Aitken(ed.), *The T&T Clark Companion to the Septuagint* (London; New York, NY: Bloomsbury, 2015), 555-567; Olivier Munnich, "Daniel, Susanna, Bel and the Dragon: Old Greek and Theodotion", Alison G. Salvesen and Timothy Michael Law(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ptuagi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291-305; Lorenzo DiTommaso, "The Additions to Daniel", Gerbern S. Oegema(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Apocryph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363-386.

- 7 Daniel Olariu, *Theodotion's Greek Text of Daniel: An Analysis of the Revisional Process and Its Semitic Source* (Leiden: Brill, 2023).
- 8 김동주, "수산나 이야기에 관한 초대 교부들의 신학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집 (2010년 10월), 32; 천사무엘, "[외경 이야기] 수산나와 다니엘", 「새가정」 (2014년), 50-53.
- 9 수산나 본문의 주석은 다음을 참조한다. Carey A. Moore, *Daniel, Esther, and Jeremiah: The Addition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7); John J. Collins, *Daniel: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1993); George J. Brooke, "Additions to Daniel", J. Barton and J. Muddiman(eds.), *The Oxford Bible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704-711.

장로들의 부패와 탐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각각의 주요 부분에서 논한다. 4장에서는 헬레니즘 시대의 파이데이아 개념과 유대 공동체에서 형성된 파이데이아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OG-수산나의 의의를 파이데이아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OG-수산나는 장로들의 부도덕성과 타락을 더욱 노골적으로 묘사하며, 다니엘의 발언을 통해 이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함으로써 독자에게 명확한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특히 Th-수산나와는 달리 OG-수산나는 에필로그에서 수산나의 목적이 이상적인 청년 교육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야기 전체를 파이데이아 관점에서 논할 수 있는 해석적 틀을 제공한다. 4장에서는 OG-수산나가 토라에 기반한 판단력과 경건한 삶의 전형을 제시하고, 이상적인 공동체 구성원의 형성을 지향하는 파이데이아 목적을 지닌 서사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 2. OG-수산나 개요

### 1) 장르 및 본문 구조

수산나의 장르는 단편문학소설(novella)로 볼 수 있다. 대부분 학자는 수산나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수산나는 다니엘의 추가적 전승으로 전해지지만, 본문 자체의 구조와 특징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장르로 분류될 수 있다. 전형적인 다니엘 1-6장의 궁정이야기나 벨과 용 같은 전설적 요소가 강한 서술과는 차별화되며, 오히려 법정 이야기, 도덕적 교훈담, 사적인 비극 등에 가까워 보인다.<sup>10</sup>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OG-수산나가 단순한 전승 서사

10 Collins, 윗글, 435-437; Lawrence M. Wills,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Jewish Books in*

나 영웅담이 아니라, 독자에게 도덕적 판단력과 윤리 의식을 훈련시키는 교훈적 서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파이데이아 연구에 적합한 자료임을 보여준다. 특히 법정 이야기나 교훈담과 같은 장르는 고대 문헌에서 흔히 도덕적 전형과 반전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윤리 기준을 서사적으로 내면화시키는 교육적 목적을 지닌다. 수산나는 부패한 권력자와 의로운 개인,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대립 구조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형을 독자에게 제시할 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타락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도록 이끈다. 이러한 구조는 파이데이아, 곧 이상적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이념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수산나 이야기가 단편 소설적 형식을 통해 윤리적 교육이라는 고차원적 목적을 실현하는 문학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OG-수산나와 Th-수산나의 구조 차이는 <표 1>과 같다. 구조에 따른 자세한 본문 내용과 차이는 3장에서 다룬다.

표 1. OG-수산나와 Th-수산나 구조 비교

주제	OG-수산나	Th-수산나
1. 발단 - 배경	5b-6절	1-6절
2. 전개 - 수산나를 향한 장로들의 탐심과 계획	7-19절	7-21절
3. 긴장 - 두 장로에 저항하는 수산나	22-23절	22-23절

*Christian Bible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1), 21-27. 본문에서 ‘단편소설적 형식’은 단지 이야기의 분량이나 외형만이 아니라, 중심 사건 중심의 구성, 도덕적 갈등과 반전, 정의 실현의 결말을 통해 구조화된 내러티브 형식을 의미한다. 수산나 본문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 윤리적 교육이라는 효과를 가능케 하며, 이는 단지 독자의 수용 방식이 아니라 본문이 지닌 서사적 전략과 기능적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나아가 ‘법정 이야기’, ‘도덕적 교훈담’, ‘사적인 비극’, ‘교훈적 서사’ 등은 모두 novella 장르 안에서 본문의 기능과 주제에 따라 나타나는 세부적 표현 또는 기능적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4. 절정 - 두 장로의 심판을 받는 수산나	28-41절	24-44절
5. 해소 - 심판받는 두 장로와 칭송받는 수산나와 다니엘	45-62절	45-62절
6. 에필로그	62a-62b절	63-64절

## 2) OG-수산나의 위치

OG-단의 본문 전승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세 가지 본문 증거는 MS88(키시아누스 코덱스: Codex Chisianus), Syh(시리아어 헥사플라: Syro-Hexapla), P967(papyrus 967)이다.<sup>11</sup> 테오도치온 본문에서는 수산나가 다니엘서 1장 앞에 위치하지만, MS88과 Syh에서는 다니엘서 12장과 벨과 용 사이에, P967에서는 벨과 용 뒤에 위치한다.<sup>12</sup> 또한 불가타(Vulgate)에서는 다니엘서 12장 뒤에 자리한다. 오리게네스는 헥사플라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수산나를 벨과 용 앞에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P967은 벨과 용의 원래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수산나를 말미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추가 본문을 마지막 부분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만약 MS88, Syh, P967의 세 사본 간 위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산나의 위치는 의도적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헤이(Lawrence Lahey)의 주장에 따르면, OG-단에서 수산나는 테오도치온 본

11 MS88, Syh, P967은 OG-단을 포함하고 있어, 괴팅엔 대비평편집본의 OG-단 재구성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세 본문 전체가 OG-단의 원형이란 의미는 아니다. 세 본문 또한 테오도치온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 P967은 1931년 이집트 아프로디토폴리스에서 발견되었다. P967은 헥사플라 이전의 사본을 담고 있어, 다니엘 뿐만 아니라 에스겔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P967의 개괄적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Siegfried kreuzer, "Papyrus 967: Its Significance for Codex Formation, Textual History, and Canon History", *The Bible in Greek: Translation, Transmission, and Theology of the Septuagint* (Atlanta: SBL Press, 2015), 255-271. P967에 관한 최근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주현, "Papyrus 967과 MT의 본문-비교(A textual-comparative methodology)를 통한 에스겔서 구원 선포의 신학적 분석: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권 4호 (2024), 73-103.

12 Collins, *읽을*, 426.

문과 유사하게 서두에 위치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sup>13</sup>

### 3) OG-수산나와 Th-수산나의 관계, 저작 시기 및 언어

대부분 학자는 Th-단이 OG-단의 개정본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sup>14</sup> OG-수산나는 47개의 구절이지만, Th-수산나는 64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무어(Carey Moore)는 두 본문이 23% 정도 동일하다고 언급한다.<sup>15</sup> 테오도치온의 수정은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기 보다는 더 매끄럽게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다루겠지만 OG-수산나에 없는 장면이 추가되거나, 동일한 장면이라도 단어 선택에 따라 장로들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sup>16</sup> 특히 OG-수산나는 장로들의 부도덕성과 타락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수산나 이야기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논문의 목적과 같이 OG-수산나는 단순한 서사적 전승을 넘어서, 공동체 윤리의 형성과 도덕적 판단력 함양이라는 교육적 목적 아래 구성된 텍스트로 이해될 수 있다.

수산나 본문의 정확한 저작 연대를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칠십인역 다니엘 저작 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수의 학자가 히브리

---

13 Lahey, 윗글, 563. Lahey는 수산나 이야기가 청년 다니엘이 정의와 지혜를 드러내는 첫 사례로서 기능한다고 보며, 이를 통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한다.

14 Dan W. Clanton, "(Re)Dating the Story of Susanna: A Proposal",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34 (2003), 123. 예외적으로 두 본문이 다른 히브리어/아랍어 대본에서 번역되었고, 두 본문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Klaus Koenen, "Von der todesmutigen Susanna zum begabten Daniel: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der Susanna-Erzählung", *Theologische Zeitschrift* 54 (1998), 1-13.

15 Moore, 윗글, 79. 비슷한 구절 혹은 동일한 구절로는 다음과 같다. 5b, 10a, 22b, 23a, 29, 33-34, 36a 40, 41a 48, 52, 57-58,

16 Lahey, 윗글, 563. 하지만 두 전승을 별개의 전승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아람어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 전후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을 것으로 본다.<sup>17</sup> 따라서 수산나 역시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전후로 그리스어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수산나의 저작 언어이다.

Th-수산나가 OG-다니엘을 개정한 것이라는 의견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그 개정 방식에 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제시된다. 첫째, Th-수산나가 기존에 존재하던 히브리어/아람어로 작성된 수산나 대본을 참조하여 개정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히브리어/아람어 대본을 참조하지 않고 개정했을 가능성이다. 셋째, 수산나가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쓰였으며, Th-수산나가 기존의 그리스어 대본을 바로 개정했을 가능성이다. 현재까지 히브리어/아람어로 작성된 수산나 대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산나 이야기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인지,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많은 학자가 여전히 수산나 이야기가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본에서 번역된 역본일 가능성에 잠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히브리어/아람어 텍스트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산나가 애초부터 그리스어로 저술되었을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sup>18</sup> 최근에는 칠십인역에 포함된 여러 추가 본문 가운데 히브리어/아람어 대본이 전하지 않는 경우, 이들 본문이 그리스어로 직접 저술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17 Moore, 윗글, 29; Collins, 윗글, 207; Brooke, 윗글, 706.

18 J. T. Milik, "Daniel et Susanne à Qumrân", Maurice Carrez(et al.), *De la Tôrah au Messie: Etudes d'exégèse et d'herméneutique bibliques offertes à Henri Cazelles* (Paris: Desclée, 1981), 337-359; George W. E. Nickelsburg, "4Q551: A Vorlage to Susanna or a Text Related to Judges 19?", *JJS* 48 (1997), 349-351. 밀릭(J. T. Milik)은 4Q551이 수산나의 아람어 대본(Vorlage)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산나라는 명칭이 4Q551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니켈스버그(W. E. Nickelsburg)가 논한 것처럼 4Q551 사본은 수산나보다는 사사기 19장에 가까울 수 있다.

### 3. Th-수산나와의 비교를 통한 OG-수산나 본문 이해

#### 1) 발단: 배경(OG-수산나 5b-6절; Th-수산나 1-6절)

OG-수산나는 5절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장로들을 통해 악이 바벨론으로 들어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시작한다. 반면 Th-수산나는 1-5a절에서 수산나의 남편인 요아킴의 평판과 그녀의 부모에 대한 언급을 통해 수산나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시작한다. Syh에는 1-5a절이 의구표(obelus)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오리게네스 이전에는 이 부분이 OG-수산나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OG-수산나가  $\pi\epsilon\rho\iota\ \acute{\omega}\nu$ 의 전치사절로 문장이 시작하는 점이 완전한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때문에 의구표의 위치가 5a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pi\epsilon\rho\iota\ \acute{\omega}\nu$ 의 전치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은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반드시 어색하다고 볼 수는 없다.<sup>19</sup> 또한 P967에도 1-5a 부분이 없으므로, OG-수산나의 서론이 Th-수산나 1-5a절에서 상세히 서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OG-수산나의 내용상 주목할 점은 OG-수산나가 수산나의 배경이 아닌 악한 장로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듯, OG-수산나는 거짓 증언을 일삼는 장로들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강경한 서술 태도를 보인다. 6절에서는 장로들이 다른 도시들의 법정 사건도 맡고 있었음을 언급하는데, 이는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음을 의미한다. 이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수산나와 대조를 이루며, 이후 전개될 장로들과 수산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수산나가 직면하게 될 불리한 상황을 나타내는 복선으로 작용한다.

19 Collins, 윗글, 430.

## 2) 전개: 수산나를 향한 장로들의 탐심과 계획(OG-수산나 7-19절; Th-수산나 7-21절)

OG-수산나는 장로들에 대한 간략한 배경 설명 이후, 7절에서 수산나의 배경을 소개한다.<sup>20</sup> 8-10절은 장로들이 수산나를 탐하게 되는 과정을 그들의 타락한 태도를 통해 직설적으로 서술한다. 이어지는 12-19절에서는 장로들이 합심하여 수산나를 탐하고자 시도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OG-수산나와 Th-수산나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며, OG-수산나는 전반적으로 장로들의 부패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 OG-수산나는 장로들이 수산나를 탐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나, Th-수산나는 장로들이 욕정을 품으면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특히 10절에서 장로들이 수산나에 대한 욕정을 서로에게 함구하는 이유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난다. OG-수산나는 이를 수산나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태도로 이해하는 반면(12절 참조), Th-수산나 11절의 동사 *αἰσχύνω*(아이스쿠노/수치스럽다)는 장로들이 욕정을 품은 데 따른 수치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수산나와 비교하여 OG-수산나에서 묘사되는 장로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성찰할 도덕적 능력이 결여된 채, 순전히 본능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OG-수산나 10절은 장로들이 품은 생각을 형용사 *κακός*(카코스/악한)를 사용하여 악한 마음으로 표현하지만, Th-수산나 10절은 *ὀδύνη*(오두네/근심)를 사용하여 장로들의 탐욕을 그들의 근심으로 표현한다. 둘째, Th-수산나의 15-21절에 등장하는 수산나의 목록

---

20 Th-수산나는 수산나의 배경을 1-4절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하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5절에 언급한다.

장면과 장로들이 수산나를 헐박하는 장면이 OG-수산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콜린스(J. J. Collins)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장면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Th-수산나에서 수산나의 목욕 장면은 장로들이 수산나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을 추가한 것이다. 비록 수산나가 의도적으로 유혹하지 않았지만, 장로들은 수산나의 목욕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욕망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목욕 장면을 통해 장로들의 패역한 마음이 그들 자신의 결심뿐 아니라 주변 상황에 의해서도 증폭되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OG-수산나는 장로들의 타락과 패역한 마음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만, Th-수산나는 욕정의 원인을 주변 환경으로 분산시킨다. 셋째, Th-수산나는 12절에서 장로들이 날마다 수산나를 지켜보았다고 서술하며, 그들의 욕망이 점진적으로 커졌음을 암시한다. 이에 반해 OG-수산나 19절은 장로들이 수산나를 범하려 시도하는 장면을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욕망을 강조한다. OG-수산나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장로들의 타락한 태도와 내면 상태를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 3) 긴장: 두 장로에 저항하는 수산나 (OG-수산나 22-23절; Th-수산나 22-23절)

두 장로가 수산나를 겁탈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자, 수

21 Collins, 윗글, 431. 수산나는 밧세바처럼 유혹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 윗글은 10장 1-3절에서 목욕과 향유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인물로 묘사되며, 12장 7-9절에서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의식임을 보여준다. 밧세바, 수산나, 윗글의 목욕 장면에 대한 비교는 다음을 참조하라. Caryn Tamber-Rosenau, "Biblical Bathing Beauties and the Manipulation of the Male Gaze: What Judith Can Tell Us about Bathsheba and Susanna",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33.2 (2017), 55-72.

산나는 이 상황에 대해 단호한 반응을 보인다. 수산나는 자신이 장로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두 장로의 올무에 걸릴지언정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한다. 이 장면은 수산나의 도덕적 순결과 신앙적 충성을 극적으로 부각하며, OG-수산나와 Th-수산나 모두 동일하게 묘사된다. 한편, OG-수산나 57절(Th-수산나 57절)은 장로들의 과거 악행을 폭로하며 그들이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반복적으로 악을 행해 왔음을 밝힌다. 이 구절은 장로들이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수산나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장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타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수산나는 다른 이스라엘 여인과는 달리 자신의 목숨이나 사회적 평판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장로들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섰음을 강조한다.

#### 4) 절정: 두 장로의 심판을 받는 수산나 (OG-수산나 28-41절; Th-수산나 24-44절)

수산나가 장로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긴장이 고조된 장면 이후, 이야기는 장로들이 수산나를 해치기 위해 거짓 고발을 단행하는 절정으로 이어진다. OG-수산나 28절에서는 장로들이 음모를 꾸민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서술되며, 29-34절에서는 수산나가 장로들과 재판관들 앞에 나아오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어 35-35a절에는 장로들 앞에 선 수산나의 간절한 기도가 나타난다.<sup>22</sup> 36-41a절은 장로들이 재판관과 회중

22 수산나의 기도에 관한 최근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Dalia Marx, "The Prayer of Susanna (Daniel 13)", Stefan C. Reif and Renate Egger-Wenzel (eds.), *Ancient Jewish Prayers and Emotions: Emotions Associated with Jewish Prayer in and around the Second Temple Period*

들 앞에서 수산나에 대해 허위로 증언하는 장면을 포함하며, 41b절은 이러한 장로들의 거짓된 발언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 단락은 OG-수산나에서 장로들이 수산나를 심문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들의 악의적 의도와 성적 욕망이 분명하고 강조된 방식으로 드러난다.

OG-수산나 32절에서는 수산나가 장로들과 모든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장로들이 수산나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한다. 콜린스가 논하듯이, 여기서 ‘벗기다’는 수산나가 걸치고 있던 모든 옷을 완전히 벗겨 알몸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반면, Th-수산나 32절은 수산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너울을 벗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칠십인역 민수기 5:18에서 간통한 여자의 얼굴을 드러내라는 명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OG-수산나 32절은 수산나의 옷을 벗기는 이유를 장로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로들의 탐욕과 패악함을 강하게 부각하려는 의도를 엿보인다. 반면, Th-수산나 32절은 OG-수산나 32절에 있는 명사 ἐπιθυμία(에피뚜미아/욕망, 갈망)를 지우고, ‘만족하다(ἐμπιπλημι)’라는 동사만 사용하여 장로들의 탐욕을 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장로들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OG-수산나가 Th-수산나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장로들의 탐욕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관음증이나 일시적 욕망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

(Berlin, München, Boston: De Gruyter, 2015), 221-238.

23 Collins, *윗글*, 431-432. 음란한 여인을 벌거벗기는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을 참조하라. 호세아 2장 3절과 10절, 에스겔 16장 37-39절.

5) 해소: 수산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다니엘 (OG-수산나 45-62절; Th-수산나 45-62절)

장로들의 허위 증언과 그들의 발언을 그대로 믿는 백성들로 인해, 수산나는 간음한 여인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그 결과 처형을 위해 끌려가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수산나가 처형되기 위해 끌려가는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을 부여하며 사건에 개입한다(45절).<sup>24</sup> 다니엘은 군중을 설득하여 장로들을 분리해 심문할 것을 제안하고(48-51절), 장로들에게 그들이 수산나를 어디서 보았는지 심문한다. 첫 번째 장로는 수산나를 “매스틱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증언하고, 두 번째 장로는 “참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대답한다. 다니엘은 이들의 증언이 모순됨을 지적하며 거짓임을 입증한다(52-59절). 다니엘의 판단을 통해 장로들의 부패와 탐욕이 드러나고, 회중은 율법에 따라 이들을 그들이 수산나에게 가하려 했던 처벌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형한다. 주님의 천사는 그들 위에 심판의 불을 내렸으며, 수산나는 무고함이 밝혀져 생명을 구원받는다(60-62절).

이 부분에서는 OG-수산나가 Th-수산나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장로들의 타락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첫째, OG-수산나 51a에서 다니엘은 장로들 또한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임을 회중에게 직설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Th-수산나에는 나타나지 않는 구절로, Th-수산나의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빠졌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OG-수산나의 저자는 다니엘의 입을 통해 장로들의 거짓과 부도덕함을 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OG-수산나 56절에서 다니엘은 장로가 유다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와 마음이 시돈 자손처럼 타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

24 Th-수산나 45절은 천사가 아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셨다고 언급한다.

다. 이는 그가 비참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Th-수산나 56절에서는 다니엘이 해당 장로를 유다 자손이 아닌 가나안 족속으로 지칭하며, 탐욕이 그 마음에 부패를 가져왔음을 언급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전승의 신학적 초점과 비판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OG-수산나는 장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키는 유다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굴복한 것을 비판하여,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내부적 실패임을 강조한다. 반면, Th-수산나는 장로의 탐욕을 이방인의 속성으로 연결하여, 그의 부패와 타락을 외부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OG-수산나가 Th-수산나보다 장로들의 책임과 도덕적 타락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61-62절은 장로들의 거짓 증언이 밝혀진 후, 회중이 장로들을 처벌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OG-수산나는 회중이 장로들을 계곡에 던진 후, 주님의 천사가 장로들에게 불을 던져 심판을 집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반면, Th-수산나는 장로들이 처벌받았다는 간단한 언급으로 결과를 서술하는 데 그친다. Th-수산나는 처벌의 결과를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종결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야기를 중수산나와 다니엘의 정의 실현에 더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OG-수산나는 장로들의 부패와 그로 인한 심판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거짓 증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강조한다. 또한, 장로들의 부도덕성과 거짓된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그들의 행동을 철저히 비판하려는 서술적 의도가 엿보인다.

#### 6) 에필로그: OG-수산나 62a-62b절; Th-수산나 63-64절

수산나의 무죄가 입증되고 두 장로가 처벌받는 결말 이후, 두 전승은 서로 다른 에필로그를 제시한다. Th-수산나의 에필로그는 수산나의 무결함(63절)과 다니엘의 높아진 명성(64절)을 강조하며 이야기의 마무리

리를 짓는다. 반면, OG-수산나는 이러한 두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젊은이들의 진실함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끝맺는다. 이는 이야기를 개인의 덕성과 도덕적 승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와 다음 세대의 도덕적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G 수산나의 이러한 결말은 사건의 개인적 성격을 넘어서 사회적 교훈과 집단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야기의 목적이 단순한 인물 중심의 서술을 넘어 교육적, 교훈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4장에서는 OG-수산나의 에필로그와 지금까지 다룬 두 장로의 타락을 강조하는 서술을 중심으로, OG-수산나의 의의를 파이데이아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4. 수산나의 파이데이아

### 1)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 파이데이아

헬레니즘 시대 유대 파이데이아는 단순한 문식성 훈련이나 기능적 교육을 넘어,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과 윤리적 성숙을 위한 총체적 인격 수양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paideia*는 시민적 덕성과 문화 형성의 핵심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이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를 “공동의 혈통”이 아닌 “공동의 교육”이 민족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마루(Henri-Irénée Marrou)는 고대 세계의 파이데이아를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기능 교육으로 보지 않고, 전인적 형성과 수양의 이념으로 이해했다. 그에 따르면, 파이데이아는 인간을 그리스 문화가 이상으로 삼는 존재, 즉 지혜롭고 도덕적이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정신적 훈련 과정이며, 고전 문화와 도덕적 가치의 내

면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격 교육의 프로젝트였다.<sup>25</sup> 또한, 위트마쉬에 따르면, 파이데이아는 단순한 사회적 실천을 넘어선 개념으로, 그리스인과 로마인 모두에게 이상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당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도구였다. 그는 이 개념이 로마의 이데올로기와 그리스의 자문화 정체성이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는 “접촉 지대”(contact zone)로 기능했다고 보며, 파이데이아를 통해 양 문명이 자신들의 세계 속 위치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한다.<sup>26</sup>

이러한 파이데이아 개념은 유대 사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대 사회에서도 자신들의 경전과 윤리, 공동체 규범을 중심으로 고유한 파이데이아 개념을 형성했다. 주라브스키(Zurawski)와 보카치니(Boccaccini)는 이 시기의 유대 교육을 “경전을 통한 윤리와 공동체 소속감의 내면화를 지향하는 정체성 형성의 수단”으로 정의한다.<sup>27</sup> 유대 파이데이아는 구체적으로 토라 중심의 교육과 실천적 지혜의 형성을 통해 구현되었다. 벤 시라서는 지혜의 추구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기도, 묵상, 필사, 성찰 등의 훈련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경건과 덕성(예: 정의, 절제, 경외심)을 갖춘 인격 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sup>28</sup> 쿰란 공동체 또한 토라 교육을 중심으로 폐쇄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에게 율법

25 Henri-Irénée Marrou,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George Lamb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6), 98-101.

26 Tim Whitmarsh, *Greek Literature and the Roman Empire: The Politics of Imi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6.

27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 “Introduction: Perspectives on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3-6.

28 Elisa Uusimäki, “The Formation of a Sage according to Ben Sira”,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59-70.

의 철저한 준수와 종말론적 정체성을 교육했다.<sup>29</sup> 또한, 디아스포라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마카베오 4서는 헬라 철학의 교육 어휘와 형식을 차용하여, 이성(logos)을 통해 핏박 속에서도 율법을 지켜 순교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상적 파이데이아로 제시한다. 필론 역시 율법을 참된 철학이자 최고의 파이데이아로 해석하며, 헬레니즘 세계와 유대 신앙을 교육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sup>30</sup> 짧게 요약하자면 제2성전기 유대 파이데이아는 토라 중심의 교육, 실천적 지혜와 덕성의 내면화, 공동체 정체성의 전승이라는 세 축을 통해 구성되며, 고대 유대 문헌 전반은 이러한 교육 이념을 문학적으로 담아내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유대 파이데이아를 수산나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 2) 수산나의 파이데이아

다음은 OG-수산나의 에필로그 부분이다.

- 62a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그들의 순수함 때문에 야곱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 62b 그리고 우리도 젊고 유능한 아들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경건하며 지식과 이해의 영이 영원히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29 Matthew Goff, "Students of God in the House of Torah: Education in the Dead Sea Scrolls",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71-92.

30 Gregory E. Sterling, "The School of Moses in Alexandria: An Attempt to Reconstruct the School of Philo",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141-146; Sean A. Adams, "Philo's Questions and the Adaptation of Greek Philosophical Curriculum",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167-184.

앞서 언급한 것처럼 OG-수산나는 Th-수산나와 에필로그 부분이 다르다. 거짓 장로들이 처벌을 받고 난 결론 이후, Th-수산나는 수산나와 다니엘이라는 중심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상황을 서술하는 반면 OG-수산나는 이야기 본문과는 다소 이질적인 권면적(hortatory) 에필로그를 덧붙이고 있다.<sup>31</sup> 이러한 구조가 주는 강조점은 OG-수산나가 단순한 도덕 이야기 이상으로, 젊은 세대를 향한 파이데이아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OG-수산나 62b절의 “우리”는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저자의 서술 시점에서 등장하는 담화 주체로, 본문의 사건을 정리하고 후세대를 향해 도덕적 메시지를 전하는 권고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서사적 전개에서 벗어나, 이야기의 교육적 목적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이시키는 내러티브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전략은 집회서의 서론에서도 잘 드러난다.<sup>32</sup> 집회서 서문은 본문의 독자들에게 지혜의

31 Collins, 윗글, 435.

32 이러한 담화적 전환은 단순한 결말을 넘어, 본문의 핵심적 윤리적 목적을 독자의 참여를 통해 실현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는 독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적 효과를 완성하는 파이데이아적 서사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OG-수산나 62b절에서 “우리”라는 화자는 이야기 세계의 인물이 아니라 저자의 담화적 목소리로, 후세대 청중에게 직접 윤리적 가치를 지키고 전승할 것을 권면한다. 이러한 담화적 전환은 단순한 결말을 넘어, 본문의 핵심적 윤리적 목적을 독자의 참여를 통해 실현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수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OG-수산나는 단지 본문 자체의 서사 구조만으로 해석되기도는, 본문이 기대하는 독자의 이해 지평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윤리적 감응과 판단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배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독자는 장로들의 타락과 다니엘의 개입을 통해 이야기 전개에 감정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62b절의 권면은 이러한 독자의 반응을 수렴하여 명시적 윤리적 태도의 수용을 요청하는 담화적 기제로 기능한다. 한편, 독자 반응 이론의 관점에서 OG-수산나는 단지 교훈을 전달하는 설명적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의 도덕적 판단을 능동적으로 유도하고 형성하도록 설계된 내러티브로 읽힐 수 있다. 인물 간의 선악 대조, 심문 장면의 극적 구성, 반복되는 언어 표현 등은 독자의 윤리 감수성과 판단 능력을 자극하며, 이는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독자의 주제적 참여 속에서 파이데이아적 효과를 완성해 간다. 이러한 독자 지향적 접근을 통해, OG-수산나의 파이데이아는 서사의 외피를 넘어, 텍스트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윤리 교육의 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요성과 율법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후대 청중에게 경전의 교훈을 수용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62b절에 사용된 동사 φυλάσσω(푸라쏘/지키다, 보호하다, 준수하다)는 공동체가 미래 세대에게 이상적인 청년들을 길러내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다음 세대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 단어의 이러한 용례는 신명기 4장 9절, 잠언 4:4-6절 등에도 나타나며, φυλάσσω 단순한 규율의 준수만이 아니라, 율법과 지혜의 보존 및 공동체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 훈련 행위로 사용된다. OG-수산나 62b절의 φυλασσωμεθα 역시 이러한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OG-수산나의 파이데이아 관점을 강조하는 핵심 동사로 기능한다. 이를 바탕으로 OG-수산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2성전기 유대 파이데이아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 파이데이아는 토라에 기초한 경건, 윤리, 지혜를 훈련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인적 교육 이념이었다.

첫째로, OG-수산나에서 장로들이 보여주는 부패와 자기기만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사례로 기능하며, 독자에게 무엇이 잘못된 판단이고 어떤 삶이 파멸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교육적인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해, OG-수산나는 이상적 인간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성찰을 유도하는 파이데이아의 한 형식으로 작동한다. 이야기의 내러티브 구조 또한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뒷받침한다. OG-수산나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내면 상태와 심리 묘사에 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그들이 점차 진실에서 멀어지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율법을 악용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묘사는 단지 사건의 리얼리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지도층에 요구되는 윤리적 경계와 책임의 중요성을 서사적으로 훈련하는 장치이다. 이처럼 OG-수산나는 윤리적 전

형과 반전형을 모두 제시하며, 수산나의 정절과 다니엘의 지혜, 그리고 장로들의 타락을 대조함으로써 독자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교육하는 파이데이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로, OG-수산나에서 다니엘의 캐릭터는 유대 파이데이아의 문학적 완성과 실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부패한 장로들의 고소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죽음을 각오한 수산나의 신앙과 정의에 대한 신뢰는,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의 개입을 통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다니엘은 원로들이 모함한 재판의 흐름을 끊고, 두 장로를 각각 별개의 장소로 불러 개별적으로 심문한 후, 그들의 진술 간 불일치를 지적함으로써 거짓 고소를 밝힌다. 이러한 장면은 단지 청년의 기지와 통찰을 보여주는 극적 장치가 아니라, 토라의 재판 규범이 문학적으로 구현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다니엘이 수행한 심문 방식은 신명기 19장 15-21절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로들이 '거짓 증인'임을 입증한다.<sup>33</sup> 이러한 절차적 정의의 실천은 레위기 19:15에서 강조된 이웃을 향한 공의로운 재판 계명을 따라, 권력이나 신분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당시 권위자인 장로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신명기 16장 18-20절에서 말하는 이상적 재판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니엘은 단순히 극적 전개를 위한 기능적 인물이 아니라, 율법적 정의에 기초하여 진실을 식별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구해낸 토라 실천자이자 교육의 열매로 제시된다. 이는 OG-수산나가 전하고자 하는 교육적 이상, 즉 토라를 통해 지혜와 판단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

---

33 신명기 19:15-21은 거짓 증인을 판별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율법 조항이다.

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이상적 청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율법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실천으로 연결하는 파이데이아의 이상을 구현하는 인물이며, 그의 개입은 공동체 내 도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 파이데이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셋째로, 다니엘의 판단이 옳음이 입증되고 장로들이 처벌받은 후, 에펠로그(62a-62b)는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내러티브 차원에서 선언하는 핵심 구절이다. 즉, 이 이야기는 정의와 경건을 실천한 청년의 지혜를 통해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수하고자 하는 유대 파이데이아의 문학적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OG-수산나의 결말은 제2성전기 유대 파이데이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토라에 충실한 공동체 구성원의 윤리적 형성과, 이상적 청년의 양성이 문학적 서사 속에서 구체화된 예라 할 수 있다. 부패한 원로들의 실패와 청년 다니엘의 지혜로운 개입을 대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 OG-수산나 본문은 독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토라를 통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교육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서사적 해답을 제공한다.

## 5.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칠십인역 다니엘에 포함된 OG-수산나와 Th-수산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히 OG-수산나가 지닌 문학적 특성과 신학적 메시지를 헬레니즘 시대 유대 파이데이아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Th-수산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OG-수산나는 그 서사적 독자성과 교육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www.kci.go.kr

으로 연구의 관심에서 소외됐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인식하고, OG-수산나의 본문 구조, 문체적 특징, 종결 방식 등을 분석하여 본문이 내포하는 윤리적 지향과 공동체 교육 이념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OG-수산나는 장로들의 부패와 위선을 서술적 강조를 통해 선명하게 그려내는 한편, 수산나의 신앙적 결단과 다니엘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율법 중심의 정의 실현을 드러낸다. 본문의 절정과 결말에 이르는 구성은 단순한 서사적 전개가 아니라, 이상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전략으로 기능한다. 수산나의 정절, 다니엘의 분별, 장로들의 타락이라는 대조적 인물 배열은 고대 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윤리적 전형과 반전형의 구조를 따르며, 이를 통해 독자는 도덕적 판단력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내면화하도록 유도된다.

무엇보다 OG-수산나 62b절에 나타나는 권고적 에필로그는 본문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 전승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 질서와 다음 세대의 윤리 교육을 위한 파이테이아 서사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집회서나 벤 시라와 같은 지혜문학 전통에서 확인되는 율법 중심의 윤리 교육과 공동체 정체성 전승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동사  $\phi\upsilon\lambda\alpha\sigma\sigma\acute{\omega}\mu\epsilon\theta\alpha$ 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제2성전기 유대 파이테이아의 핵심 개념 — 율법과 지혜의 지속적 내면화와 실천 — 을 언어적으로 구현하는 표현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OG-수산나가 단순히 정결한 여성을 둘러싼 극적 서사가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공동체 윤리 형성과 이상적 청년 양성을 지향하는 문학적 훈육의 장으로 기획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의 행위는 토라를 실천한 대표적 사례로, 파이테이아의 구체적 열매로 제시되며, 에필로그는 독자에게 그러한 이상을 공동체 차원에서 계승할 것을 촉구하는 담론적 장치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OG-수산나는 제2성전기 유대 문헌에서 파이테이아 목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사 중 하나로서, 교육

적 실천과 문학적 기법이 융합된 고도의 내러티브 전략을 보여준다. 본문은 정의, 경건,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핵심 덕목을 전달하며, 헬레니즘 세계 속 유대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하려는 유대 파이데이아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예로 평가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은성, “아사리아의 기도: 번역과 주해 및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한 고찰”, 『신학사상』 197집 (2022년 여름), 88.
- 곽은성, “헬리어로 접근할 수 있는 칠십인역 본문 우리말 번역 사례 연구”, 한국칠십인역번역위원회 지음, 김정훈 편집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 필요성과 의미, 하박국서 본문의 실례』 (서울: 감은사, 2024), 67-94.
- 김동주, “수산나 이야기에 관한 초대 교부들의 신학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집 (2010년 10월), 32.
- 김주현, “Papyrus 967과 MT의 본문-비교(A textual-comparative methodology)를 통한 에스겔서 구원 선포의 신학적 분석: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권 4호 (2024), 73-103.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서울: 바오로딸, 2009).
- 김정훈,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9권 2호 (2023), 9-40.
-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김정훈/배희숙/차준희/하경택 옮김), (서울: (재)대한성서공회). 원제는 Alexander Achilles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 우상혁, “아리스테아스 서신과 칠십인경 개정”, 『신학사상』 146집 (2009년 가을), 39-70.
- 천사무엘, “[외경 이야기]수산나와 다니엘”, 『새가정』 (2014년), 50-53.
- Adams, Sean A., “Philo’s Questions and the Adaptation of Greek Philosophical Curriculum”,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 (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167-184.
- Brooke, George J. “Additions to Daniel”, J. Barton and J. Muddiman (eds.), *The Oxford Bible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704-711.

- Clanton, Dan W., “(Re)Dating the Story of Susanna: A Proposal”,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34 (2003), 121-140.
- Collins, John J., *Daniel: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1993).
- DiLella, Alexander A., “The Textual History of Septuagint-Daniel and Theodotion-Daniel”, J. Collins and Peter W. Flint(eds.),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vol. 2 (Leiden: Brill, 2001), 586-607.
- DiTommaso, Lorenzo, “The Additions to Daniel”, Gerbern S. Oegema(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Apocryph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363-386.
- Goff, Matthew, “Students of God in the House of Torah: Education in the Dead Sea Scrolls”,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71-92.
- Koenen, Klaus, “Von der todesmutigen Susanna zum begabten Daniel: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der Susanna-Erzählung”, *Theologische Zeitschrift* 54 (1998), 1-13.
- kreuzer, Siegfried, “Papyrus 967: Its Significance for Codex Formation, Textual History, and Canon History”, *The Bible in Greek: Translation, Transmission, and Theology of the Septuagint* (Atlanta: SBL Press, 2015), 255-271.
- Lahey, Lawrence, “The Additions to Daniel”, James K. Aitken(ed.), *The T&T Clark Companion to the Septuagint* (London; New York, NY: Bloomsbury, 2015), 555-567.
- Marrou, Henri-Irénée,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George Lamb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6).
- Marx, Dalia, “The Prayer of Susanna (Daniel 13)”, Stefan C. Reif and Renate Egger-Wenzel(eds.), *Ancient Jewish Prayers and Emotions: Emotions Associated with Jewish Prayer in and around the Second Temple Period* (Berlin, München, Boston: De Gruyter, 2015), 221-238.
- McLay, R. Timothy, “Daniel(Old Greek and Theodotion)”, James K. Aitken(ed.), *The T&T Clark Companion to the Septuagint* (London; New York, NY: Bloomsbury, 2015), 544-554.
- Milik, J. T., “Daniel et Susanne à Qumrân”, Maurice Carrez(et al.), *De la Tôrah au Messie: Etudes d'exégèse et d'herméneutique bibliques offertes à Henri Cazelles* (Paris: Desclée, 1981), 337-359.
- Moore,Carey A., *Daniel, Esther, and Jeremiah: The Addition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7).

- Munnich, Olivier, “Daniel, Susanna, Bel and the Dragon: Old Greek and Theodotion”, Alison G. Salvesen and Timothy Michael Law(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ptuagi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291-305.
- Nickelsburg, George W. E., “4Q551: A Vorlage to Susanna or a Text Related to Judges 19?”, *JJS* 48 (1997), 349-351.
- Olariu, Daniel, *Theodotion's Greek Text of Daniel: An Analysis of the Revisional Process and Its Semitic Source* (Leiden: Brill, 2023).
- Sterling, Gregory E., “The School of Moses in Alexandria: An Attempt to Reconstruct the School of Philo”,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141-146.
- Tamber-Rosenau, Caryn, “Biblical Bathing Beauties and the Manipulation of the Male Gaze: What Judith Can Tell Us about Bathsheba and Susanna”,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33.2 (2017), 55-72.
- Uusimäki, Elisa, “The Formation of a Sage according to Ben Sira”,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59-70.
- Whitmarsh, Tim, *Greek Literature and the Roman Empire: The Politics of Imi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Wills, Lawrence M.,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Jewish Books in Christian Bible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1).
- Ziegler, Joseph, Olivier Munnich, and Detlef Fraenkel, *Susanna, Daniel, Bel et Draco* (Göttingen Septuagint XVI,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9).
- Zurawski, Jason M., and Gabriele Boccaccini, “Introduction: Perspectives on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Jason M. Zurawski and Gabriele Boccaccini(eds.), *Second Temple Jewish Paideia in Context* (Berlin: de Gruyter, 2017), 1-10.

## 검색어

다니엘서, 칠십인역 다니엘, 원-칠십인역 수산나, 파이테이아, 테오도치온 수산나, 거짓 증언

[ ABSTRACT ]

## Paideia in the Old Greek Susanna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odotion's Susanna in Daniel<sup>34</sup>

Un-Sung Kwak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Old Greek version of Susanna (hereafter OG-Susanna) by comparing it with the Theodotion version (hereafter Th-Susanna), both of which are included in the Septuagint Daniel. Although recent years have witnessed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Septuagint, as seen in the publication of numerous scholarly handbooks, research on the Old Greek version of Daniel — especially OG-Susanna — remains relatively neglected. Despite OG-Susanna's notable influence on early Christian doctrine and ethical teaching, it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Korean scholarship, and no complete Korean translation currently exists. This study seeks to bring renewed scholarly attention to OG-Susanna by offering a fresh interpretation of its literary form and theological message.

The central ques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How does OG-Susanna differ literarily from Th-Susanna, and what do these differences reveal about the narrative's purpose and message? In particular, how does OG-Susanna's more explicit and direct criticism of the elders' greed and

---

34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isa Research Grant of Keimyung University in 2024 (Project No: 20240487).

corruption function within the narrative?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study engages the concept of paideia as developed during the Hellenistic period and adapted within Second Temple Judaism.

Chapter 2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usanna narrative, including its genre, structure, textual position, dat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G and Th versions. Chapter 3 conducts a comparative literary analysis of the two versions, focusing especially on how OG-Susanna portrays the moral failure and hypocrisy of the elders with greater narrative emphasis. Chapter 4 explores the Hellenistic and Jewish notions of paideia, and based on that framework, analyzes OG-Susanna's educational purpose and literary function. Notably, OG-Susanna concludes with a didactic epilogue that explicitly emphasizes the moral instruction of the youth, thereby highlighting its intention to contribute to the ethical formation and communal integrity of the next generation.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OG-Susanna should not be viewed merely as a moral tale or apocryphal appendix, but rather as a literary embodiment of Jewish paideia, promoting the formation of ideal individuals who embody justice, piety, wisdom, and communal responsibility grounded in the Torah.

#### key words

The book of Daniel, Septuagint Daniel, Old Greek Susanna, Paideia, Theodotion Susanna, False Witness

투고일 : 2025년 04월 16일

심사일 : 2025년 05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6월 02일

www.kci.go.kr